

舊韓國時代 政府工事機構의 職員에 關한 研究

— 度支部建築所를 中心으로 —

金泰中

(경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金純一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서론

청일·러일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의 내정에 보다 깊숙히 관여하게 된다. 즉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요로 1904년 8월에 맺어진 第一次 韓日協約에 따라 일본이 추천한 외국인 財政顧問·外交顧問을 초빙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1905년 11월에는 第二次 韓日協約(乙巳條約)이 맺어져 외교권까지 박탈당하게 되었다. 이어 1906년 2월에는 統監府가 업무를 개시하고 1907년 7월에는 韓日新協約이 체결되어 소위 次官政治가 시작되면서 施政改善에 관하여 統監의 지도를 받아야 하고, 법령의 제정이나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統監의 사전승인을 요하며 統監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우리 정부의 관리로 임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¹⁾

이러한 시기에 일본인으로 구성된 財政顧問부와 일본인들의 영향하에 놓여있던 議政府에서는 정부의 각종 건축토목공사를 집행하기 위하여 몇

개의 공사전문기구를 만드는데 이것이 財政顧問부가 관장한 稅關工事부와 그 後身인 臨時稅關工事部, 그리고 議政府 傘下에 度支部 管掌으로 설치한 建築所이다. 建築所 創設前 정부의 공사전문기구로는 宮内部營繕司와 總稅務司 겸 財政顧問이 管掌하는 稅關工事부가 있었다. 그러나 王室의 쇠락과 더불어 宮内部營繕司가 財政顧問부와 議政府에서 계획하고있던 官營工事を 주도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따라서 官營工事的 실행은 稅關工事부와 이후 창설된 建築所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

1906년 9월에 창설된 建築所는 1910년 8월 韓日合邦과 더불어 그 업무를 總督府會計局營繕課에 인계할 때 까지 약 4년간 존치하면서 各部의 중앙청사와 전국각지의 재무서, 경찰서, 재판소, 감옥등의 행정관서, 그리고 관사, 창고, 공장, 학교, 병원등 엄청난 물량의 신축, 증축, 수선공사를 집행했을 뿐 아니라 1908년 8월에는 稅關工事부의 後身인 臨時稅關工事部를 흡수하여 각지의 港灣土木工事까지 관장한 舊韓國時代 최대의 정부공사기구였다고 할 수 있다.²⁾

1) 姜萬吉: 〈韓國近代史〉, 創作과 批評社, 1984, pp. 208~211

2) 建築所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이처럼 많은 공사를 수행한 建築所를 중심으로 稅關工事部와 臨時稅關工事部 등의 政府工事機構를 실제로 움직인 職員の 實체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당시 政府工事機構의 인적구성원의 實체와 그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근대 건축도입사에 있어서의 이들 조직의 역할과 위치가 올바르게 규명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각 단계별의 官制變化에 따른 각 기구의 構成과 補任을 규명하고 다음으로 직원 개인의 학력과 경력을 고찰한다. 여기서 특히 建築所의 한국인직원과 기술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 技師級의 일본인 건축·토목기술 직 직원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의 고찰과 분석에 의한다. 官制의 변화와 직원구성 및 보임은 당시의 官報와 기타 官邊史料에 주로 의존하고 직원개인의 학력과 경력등은 官報, 인명록, 직원록을 인용한다.

이 연구는 한국근대건축생산사를 정립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2. 官制의 成立과 變化

1906년 9월 28일 勅令 第55號로 建築所의 官制가 공포된다.³⁾ 全文 4條로 된 관제의 내용은 建築所는 稅關부대신의 관리에 속하고 건축 기타 공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勅任의 소장은 度支部協辦이 겸임하고 奏任의 事務官과 技師, 判任의 主事와 技手를 두는데 모두 稅關부겸임이라는 것이다. 이 관제가 공포될 때까지 宮内部營繕司는 존속되고 있었고 이때 營繕司의 분과규정도 함께 준비되었던 것이다.⁴⁾

1907년 12월 18일에는 勅令 第42號로 第一次의 建築所의 관제가 폐지되고 새로 보완된 관제가 공포된다.⁵⁾ 全文 10條의 내용은 소장은 稅關부차관이 겸임하지만 겸임이 아닌 專任의 事務官 2人(奏任), 技師 3人(奏任), 主事 6人(判任), 技手 26人(判任)을 두고 공사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시로 技師와 技手를 增置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한 지금까지 總稅務司廳에서 관장해온 稅關공사 전부를 稅關부로 일원화시키면서 같은 날 勅令 第48號의 臨時稅關工事部 官制와 勅令 第49號로 燈臺局 官制도 공포되는데⁶⁾ 종전의 稅關工事部 組織중 工務局은 臨時稅關工事部로, 燈臺局은 稅關부의 直轄局으로 개편한 것이다. 臨時稅關工事部는 稅關공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하고 직원으로는 겸임가능한 部長 1人과 專任의 事務官 1人(奏任), 技師 7人(奏任, 內一人을 勅任으로 함을 得함), 主事 5人(判任), 技手 17人(判任)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07년 12월 29일에는 勅令 第69號로 煉瓦製造所 官制도 공포된다.⁷⁾ 煉瓦製造所는 建築所에 부속하여 연와 및 건축재료의 제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하여 관영공사에 소요되는 벽돌과 기와, 토관을 官給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1907년 4월 18일에는 勅令 第21號로 西北營林廠 官制를 공포하여⁸⁾ 西北營林廠은 稅關부대신과 농상공부대신의 공동소관으로 하며 압록강과 두만강 연안의 삼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함으로서 목재도 관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⁹⁾

이와 같은 法制는 차차 정비되면서 그 세칙이 마련된다. 1908년 1월 27일 官報의 彙報欄에는 建築所分課規程이 발표되는데¹⁰⁾ 建築所에 庶務課와 工事課를 둔다는 것과 각각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날 煉瓦製造所의 分課規程도

金泰中：〈舊韓末 度支部建築所의 組織과 事業에 關한 研究〉 釜山大碩論, 1981, 舊韓國 度支部建築所附設 煉瓦製造所에 關하여 〈慶南大工業 技術研究所論文集〉 第3輯, 1985, pp. 165~176. 度支部建築所 建築物의 樣式에 關한 考察 〈慶南大工業技術研究所論文集〉 第9輯 1991, pp. 181~194

金純一：舊韓國度支部建築所에 關한 一考察 〈釜山工大 大研究報告〉 27輯, 1985, pp. 175~180

3) 〈官報〉 3570號 附錄(光武10年 9月28日)

4) 〈官報〉 3555號(光武10年 9月11日)

5) 〈官報〉 號外(隆熙元年 12月18日)

6) 〈官報〉 號外(隆熙元年 12月18日)

7) 〈官報〉 號外(隆熙元年 12月29日)

8) 〈官報〉 3743號(光武11年 4月18日)

9) 〈韓國財政施設綱要〉 度支部, 1910. pp. 243~244

10) 〈官報〉 3981號(隆熙2年 1月27日)

공고된다.¹¹⁾ 經理課와 作業課로 나눈다는 것이다. 1908년 4월 4일에는 勅令 第21號로 臨時稅關工事部 官制중 개정건이 공고된다.¹²⁾ 專任의 事務官을 1인에서 2인으로 하며 필요시 임시로 技師, 技手, 主事를 증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08년 8월 13일에는 勅令 第59號로 建築所官制改正件이 공포되는데¹³⁾ 勅令 第48號로 공포된 臨時稅關工事部 官制를 폐지하고 업무와 직원 모두가 建築所에 흡수된다는 내용이다. 이 관제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第1條 建築所는 度支部大臣의 管理에 屬하여 建築工事 및 稅關工事に 關한 事務를 掌管함

第2條 建築所는 아래 職員을 雇
 長官 1人 勅任
 書記官 專任 1人 奏任
 事務官 專任 3人 奏任
 技師 專任 10人 奏任
 (內 2人을 勅任으로 함을 得함)
 主事 專任 10人 判任
 技手 專任 40人 判任

第9條 度支部大臣은 必要한 處所에 建築所出張所를 둘 수 있음

第10條 度支部大臣은 必要時 工事豫算範圍內에서 臨時로 技師, 主事, 技手를 增置할 수 있음

이어서 같은 해 8월 24일에는 度支部告示 第8號로 인천, 부산, 원산, 진남포, 청진, 군산, 목포에 建築所의 出張所를 설치하는 것을 공고한다.¹⁴⁾ 또한 1908년 9월 2일에는 建築所分課規程改正件이 공고되는데¹⁵⁾ 庶務課와 工事課로 되어있던 먼저의 분과규정을 고쳐 工事部와 經理課로 하고 工事部안에 建築課와 土木課를 두어 업무를 분掌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建築所는 단계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타 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체제를 정비해 나갔던 것이다.

3. 職員의 構成과 補任

위에서 살펴본 建築所의 관제에 당시사정에서 특별한 瑕疵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관제의 변화에 따라 직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바뀌었으며 누가 보임되었는가이다.

1907년 7월 24일의 韓日新協約에 따라 1908년 1월부터 各部改訂官制가 실시되어 일본인이 한국 정부의 정식관리로 임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建築所의 직원구성과 보임에도 이 싹점을 고비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서는 1907년 7월을 기준으로하여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建築所의 직원구성과 보임의 변화, 그리고 전, 후기의 특성을 파악한다.

3-1. 韓日新協約 以前(1906. 9-1907. 7)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에는 建築所의 관제가 공포되기도 전인 1905년에 이미 적십자병원신축공사(1905. 11-1906. 5)와 인쇄국직업장중축공사(1905. 10-1905. 12), 경성감옥신축공사(1906. 1-1906. 12) 등을 준공했거나 공사중이었고 수원농림학교신축공사(1906. 9-1906. 12), 의정부신축공사(1907. 4-1907. 12), 탁지부신축공사(1907. 5-1907. 9), 대한의원본관신축공사(1907. 3-1908. 5) 등도 계획한 것으로 되어있다.¹⁶⁾

먼저, 建築所가 창설되기도 전에 이러한 공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主體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第一次韓日協約에 따라 부임한 日本人 財政顧問은 歐美人 總稅務司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아 總稅務司 겸 財政顧問으로서의 겸임을 시작하면서 세관설비확충과 항만정비공사를 위하여 1905년 12월 稅關工事部를 조직한다.¹⁷⁾ 稅關工事部는 燈

11) 〈官報〉 3981號(隆熙2年 1月27日)

12) 〈官報〉 4039號(隆熙2年 4月4日)

13) 〈官報〉 4151號(隆熙2年 8月13日)

14) 〈官報〉 4159號(隆熙2年 8月24日)

15) 〈官報〉 4166號(隆熙2年 9月2日)

16)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朝鮮建築所, 1909. pp. 91~96

17) 〈韓國財政施設綱要〉 p. 9

臺局과 工務局으로 구성되었는데 燈臺局은 종래의 仁川 海關燈臺局¹⁸⁾ 조직을 인계받아 등대와 航路標識工事を 전담하고 工務局은 總稅務司 財政顧問의 관리에 속하는 건축·토목공사를 전담하는 부서였다. 稅關工事部工務局은 所管工事を 처리하면서 차츰 세관관장범위 밖의 관영공사에도 관여하게 되어 그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그러나 財政顧問部가 建築所를 전담하는 技師와 事務官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것은 建築所 官制가 공포된 1906년 9월과 거의 동시의 일이다. 그러므로 建築所 창설전에 실행하고 계획한 위의 공사는 稅關工事部工務局 所屬의 기술자들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 확실하다. 財政顧問部는 稅關工事部 기술자들을 움직여 그런대로 앞의 공사를 처리해가던중 1906년 2월부터 統監府의 업무시작과 함께 식민지 통치와 수탈에 필요한 官衙施設 建築가 시급하게 되자 별도의 工事專門機構가 필요하게되어 建築所를 창설키로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하여 창설된 초기의 建築所는 청사설비가 미비하여 稅關工事部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1907년 3월 20일에 이르러서야 탁지부 구내의 재래창고를 수선하여 이전해 갔다고 하니¹⁹⁾ 建築所를 전담하는 일본인 囑託技師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까지 建築所의 기술관계업무는 稅關工事部의 기술자들에 의하여 처리되었음이 보다 분명해진다.

그러면 韓日新協約 이전의 建築所職員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補任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먼저 建築所의 正式官吏인 한국인직원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建築所 창설초기에 해당되는 1907년 7월 이전은 韓日新協約이 체결되기 전이었으므로 일본인은 正官관리자가 아닌 補囑이란 신분이었고 當연직

으로 되어있는 建築所所長은 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度支部協辦인 柳正秀가 겸임하였다.²⁰⁾ 12월 처음으로 度支部 參書官 金教聲이 建築所 事務官을 겸임토록 발령을 받는다.²¹⁾ 다음해인 1907년 3월에는 趙漢喆이 技師(奏任官 4等)로, 李範益도 技師(奏任官 4等)로, 俞承兼은 事務官(奏任官 4等)으로, 金明濟도 事務官(奏任官 2等)으로 임명되었다.²²⁾ 그러나 같은 달 金教聲은 겸임에서 해촉되어 度支部 參書官으로 돌아간다.²³⁾ 다시 6월에는 金徹龜가 技師(奏任官 4等)로 임명되지만 李範益은 사직하고²⁴⁾ 7월에는 朴正統이 事務官(奏任官 4等)으로 임명된다.²⁵⁾ 이 시기에 있어서 建築所에 전임·전출한 직원으로는 事務官으로 金教聲, 金明濟, 俞承兼의 3명, 그리고 技師로는 趙漢喆, 李範益, 金徹龜의 3명 - 모두 6명이 있었는데 모두 관제가 정한 대로 탁지부겸임이었다.

다음으로 이때 財政顧問部에 소속되었지만 실제로 建築所의 업무를 처리한 補囑身分의 일본인 직원에 대하여 살펴보자.

建築所 창설초기부터 근무한 일본인직원은 補囑事務官 太田德太郎과 補囑技師 國枝博이다.²⁶⁾ 이들이 建築所의 正官관리로 서임을 받는 것은 1908년 1월 14일자로 되어있으나²⁷⁾ 國枝博은 1906년 9월, 太田德太郎은 1907년 2월부터 사실상 建築所職員으로 근무해왔다.²⁸⁾ 어느 정도 체제가 잡힌 1907년 6월 당시 建築所에는 모두 31명의 직원이 근무했는데 이중 일본인이 27명이었고 한국인은 4명에 불과했다. 國枝博이 工事課 主任으로 앉은 기술직에는 技師 馬淵豊과 技手 4

18) 仁川海關燈臺局은 청일전쟁후 일본의 권유에 따라 인천항로에 등대를 건설하고 항로표식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시행키위하여 1902년 탁지부관할로 설치한 영선조직이다. 직원임용과 운영등의 실제업무는 총세무사가 관장했다. <仁川府史> 仁川府, 1933. p. 747

19) <韓國財政整理報告>第4回, 韓國政府財政顧問部, 1907. 10. p. 37.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 p. 92

20)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 p. 223

21) <官報> 3641號(光武10年 12月20日)

22) <官報> 3707號(光武11年 3月7日)

23) <官報> 3707號(光武11年 3月7日)

24) <官報> 3795號(光武11年 6月18日)

25) <官報> 3828號(光武11年 7月26日)

26)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 p. 223

27) <官報> 3970號(隆熙2年 1月14日)

28) <朝鮮紳士名覽> 朝鮮公論社, 1917. p. 309, <韓國財政整理報告>第4回 pp. 372~375

명, 技手補 12명과 그밖의 雇와 臨時雇를 합쳐 모두 23명이 있었고 사무직에는 太田德太郎과 書記 1명, 雇 2명등 모두 4명이 근무하여 모두 27명의 일본인 직원이 있었다.

기술직직원의 업무는 설계·제도와 현장감독, 그리고 측량으로 나누어졌다. 技手이하는 약 반반으로 나누어 현장감독과 설계·제도를 맡았고 측량은 技手補 1명과 雇 1명이 맡았다. 國枝博은 주임으로 工事課 업무를 통괄하면서 馬淵豊과 함께 설계·제도업무를 처리했을 것이다. 이들 기술직과 사무직 및 일용잡급직은 전원이 일본인이었고 심지어 청사진일까지 일본인 인부를 고용했으니 그야말로 建築所의 전 보임을 일인들이 완전히 독점한 것이다.²⁹⁾

그러나 1907년 6월 당시, 建築所에 근무중인 事務官 金明濟, 俞承兼과 技師 趙漢喆, 金徹龜등 4명의 한국인에게는 구체적인 담당업무가 주어지지 않았다. 당시 이들의 역할에 관해서는 章을 달리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한편 이 시기의 稅關工務局에는 한국인의 보임이 단 1명도 없이 38명의 직원 전원이 일본인이었다. 이 중 25명이 1906년 이전에 입국한 자들로 日本 大藏省臨時建築部 技師·技手 혹은 日本 臨時稅關工務部 技手로 근무하던 中總稅務司 檢 財政顧問의 拔擢으로 來韓한 토목·건축기술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38명의 직원중 기술직이 36명으로 건축기술자와 토목기술자의 比는 13명 對 23명이고 技師와 技手の 比는 6명 對 30명이었다.³⁰⁾ 건축기술자의 수가 13명이나 되었던 것을 보면 항만과 세관설비축조의 토목공사외에 건축공사도 많이 처리했음이 확실하다. 이로서 建築所가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稅關工務局이 정부기구내에서 가장 잘 정비되고 체계가 잡힌 영선조직이었음이 확인된다.

韓日新協約이 체결되기 전 建築所와 稅關工務局的 職員構成과 補任은 財政顧問의 수족으로 활동한 補囑身分의 일본인 技師와 事務官들이 독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기술업무는 補囑技師

國枝博과 馬淵豊이 주축이 되고 필요시 稅關工務局 工務所屬 일본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처리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인은 稅關工務所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建築所에서 정식 관리로 근무한 소수의 한국인에게도 구체적인 보임은 주어지지 않았다.

3-2. 韓日新協約 以後(1907.8-1909.6)

1907년 7월24일에 조인된 韓日新協約으로 인하여 일본의 소위 次官政治가 시작되고 한국내정 감독권이 확립되어 일본인이 한국정부의 정식관리로 임용되는 길이 트임에 따라 建築所의 사정도 전과는 전혀 달라지게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07년 12월에는 建築所와 관련된 勅命을 삼회에 걸쳐 공포하여 체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1908년 1월부터 일본인의 서임이 크게 늘어난다. 또한 공사량의 증가³¹⁾에 따라 臨時稅關工務部 技師들이 建築所 技師를 겸직하게되며 이때를 전후하여 탁지부겸임으로 근무해왔던 대다수의 한국인직원이 전출되고 그 자리는 모두 일본인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즉, 事務官 金明濟는 1907년 12월 度支部 稅務官으로 전보된다.³²⁾ 俞承兼과 金徹龜는 1907년 7월과 8월에 각각 度支部 書記官과 中樞院 副贊議로 전보되었다.³³⁾ 1908년 1월 현재 건축소에 남아 근무를 계속한 한국인직원은 기술직에는 技師 趙漢喆 뿐이었고 사무직으로는 事務官 朴正統과 1907년 8월 主事로 전보되어온 崔承七만 남게되었다.³⁴⁾

이와 동시에 당시의 度支部次官이었던 荒井賢太郎이 建築所所長을 겸임하게되고 補囑으로 있던 太田德太郎은 奏任3等 事務官, 國枝博은 奏任3等

31) 前년에 비하여 공사금액상으로 50% 이상 증가한다.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 pp. 91~114, 149~158의 集計에 의함

32) <官報> 3707號(光武11年 3月7日), 3952號(隆熙2年 12月18日)

33) <官報> 3821號(光武11年 7月18日), 3840號(全年 8月9日)

34) <韓國財務經過報告>第1回, 度支部, 1908年 上半期, pp. 560~561

29) <韓國財政整理報告>第4回 pp. 372~375

30) <上揭書> pp. 247~249

區 分	年 月	技 術 職		事 務 職		計 技術職/事務職
		技 師	技 手	事務官	主事	
建築所	1908. 1	5 (1)	16	3 (1)	3 (1)	21 (1)/6 (2)
臨時稅關工事部	1908. 1	8	16	1	4	24/5
建築所(統合後)	1909. 6	15 (1)	100 (1)	4 (1)	25 (3)	115 (2)/29 (4)

<표 1> 1908年 以後 職員構成의 變化.³⁷⁾ ()안은 韓國人 職員數

技師가 되었다.³⁵⁾ 그리고 八木親豊은 奏任3等 事務官, 勝又六郎은 奏任3等 技師로서 臨時稅關工事部 技師를 겸하게 되고 또 馬淵豊은 奏任4等 技師가 된다.³⁶⁾ 이를 시작으로 官報의 “敍任及辭令”란에는 일본인들의 이름이 줄을 잇게 되고 한국인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1908년 1월의 建築所와 臨時稅關工事部, 그리고 臨時稅關工事部가 建築所에 흡수통합된 1909년 6월의 각 조직의 직원구성을 비교해 보자.

<표 1>에 의하면 1908년 1월의 建築所에는 임시로 증치된 雇를 제외한 정규직원으로서 기술직은 技師로는 兼任技師 포함하여 5명, 技手 16명, 모두 21명이고 사무직은 事務官 3명, 主事 3명 등 모두 6명으로 技手, 主事級 이상만 27명이 근무했다. 6개월전의 技師 2명과 技手 4명에 비하여 기술직만 해도 15명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 숫자도 1907년 12월 勅令 42號로 공포된 관제의 규정인원과 비교하면 事務官과 技師는 1명씩 많으나 主事は 3명, 技手는 10명이나 부족한 것이다. 이에 따라 日本人 主事 2인과 技手 12인이 새로 임명된다.³⁸⁾

한편, 勅令 第48號에 의해 稅關工事部工務局에서 개편된 臨時稅關工事部는 1, 2, 3課와 전국주요항만에 설치한 出張所와 派出所로 구성되었다. 1課는 서무,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2, 3課는 공사와 감독업무를 관장하는 기술담당부서였다. 이

때, 臨時稅關工事部에 근무한 判任官이상의 직원은 모두 29명이었다. 이중 사무직은 事務官 1명, 主事 4명이요 기술직은 24명인데 技師가 8명이요 技手는 16명이다. 1907년 6월 보다는 技手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많은 建築技手가 建築所로 전보된 결과이다.

이후 臨時稅關工事部를 흡수한 建築所의 직원은 1909년 6월현재 判任官級 이상만 144명에 이르렀고 이중 기술직이 115명, 사무직이 29명이었다. 그의 공사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고용한 雇, 臨時雇, 庸人이 337명에 달했다.³⁹⁾ 이러한 직원규모는 官制의 규정을 2배이상 초과한 것으로 이는 공사량의 증가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식민지병합을 목전에 둔 당시의 상황에서 建築所의 운영은 이미 탁지부의 관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09년 6월 현재 建築所에 근무한 한국인은 모두 6명이다. 이들은 기술직으로는 技師 趙漢喆과 技手 尹榮觀의 2명이요 사무직으로는 事務官 朴正銜과 崔承七, 主事 金元植(判任官 3等)과 梁曾煥(判任官 3等)의 4명이다.⁴⁰⁾ 사무직은 且置하고라도 115명의 기술직원중 한국인이 단지 2명밖에 되지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인으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일본인들이 계획적으로 한국인을 소외시킨 것이 아니었나 의심치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때 建築所 주요직책의 補任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909년 6월 建築所의 조직구성과 보임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35) <官報> 3970號(隆熙2年 1月14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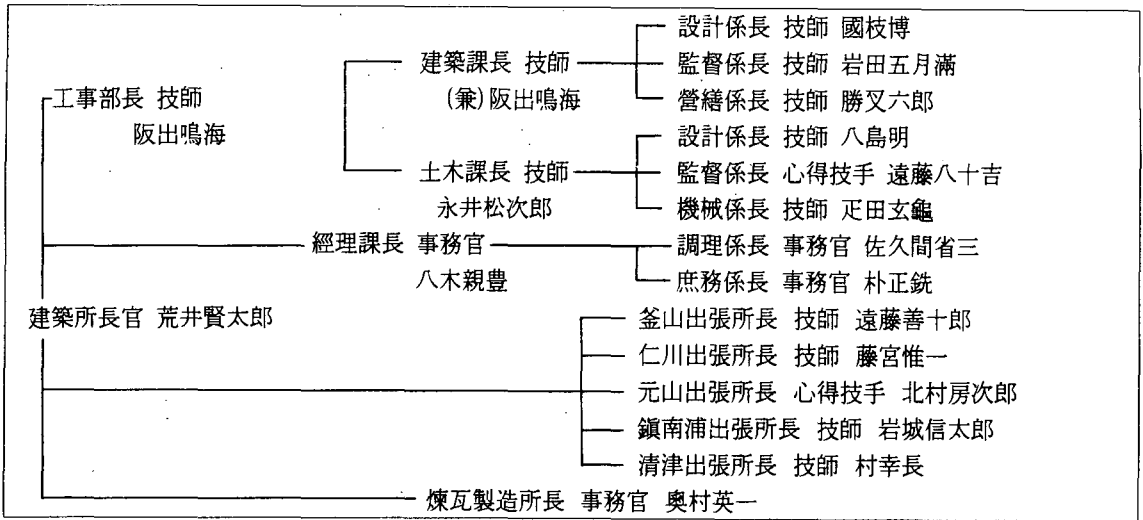
36) <官報> 3970號(隆熙2年 1月14日)

37)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 pp. 223~226의 再構成에 의한 것임.

38) <官報> 3967號 附錄(隆熙2年 1月10日), 3970號(全年 1月14日), 3980號(全年 1月25日)

39)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 pp. 225~226

40) <官報> 3987號(隆熙2年 2月3日), <韓國財務經過報告> 第1回, p. 563



〈그림 1〉 1909年 6月 建築所 主要職責의 補任⁴¹⁾

建築課의 각 계장직은 韓日新協約 以前에 補囑 技師로 활동했던 日本人職員들이 차지하고 土木課의 각 계장직과 출장소장직은 臨時稅關工事部에서 흡수된 日本人 土木技師·技手로 채워졌다. 한편 한국인은 서무계장 朴正銑 1명만이 간부직이었을뿐 나머지는 그야말로 일본인의 완전한 독점이었다.

4. 職員의 學歷과 經歷

다음으로 建築所職員의 학력과 경력, 즉 건축 교육력과 건축관련이력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1906년 9월부터 1909년 6월까지의 기간에 근무한 建築所職員을 고찰대상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진출·전입한 직원도 모두 포함한다. 직원은 한국인과 일본인으로 구분하는데 한국인은 技師·技手의 기술직과 事務官·主事의 사무직으로 나누어 建築所 근무이전과 이후의 행적을 고찰하고 일본인은 技師級 이상의 기술직만 고찰한다. 고찰의 대상이 되는 직원은 모두 25명이다. 이중 한국인은 기술직 4명, 사무직 7명, 합계 11명이고 일본인은 14명으로 建築技師가 6

명, 土木技師가 8명이다.⁴²⁾

고찰대상은 4그룹으로 분류한다. 韓國人-技師·技手와 事務官·主事, 日本人-建築技師와 土木技師의 구분이 그것이다.

4-1. 韓國人-技師·技手

建築所에 근무한 한국인 기술직원은 다음의 4명이다. 敍任順序에 따라 거명하면 技師는 趙漢喆, 李範益, 金徹龜의 3명이고 技手 1명은 尹榮觀이다.

이들의 敍任年度와 建築所 敍任前後의 이력은 〈그림 2〉와 같다. (p. 61 참조)

趙漢喆과 李範益은 1907년 3월 7일 같은 날 奏任官 4等의 建築所 技師로 서임받았다.⁴³⁾

趙漢喆은 1906년 10월 25일 内部 主事로 서임받고 약 3개월후 建築所로 옮기는데 그가 건축에 관한 어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지만 한일합방 시까지 建築課設計係에서 일본인 技師들과 함께 근무한 것은 틀림없다.⁴⁴⁾ 그는 가장 오랜 기간

41)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 pp. 225~226의 再構成에 의한 것임.

42) 1906年 9월부터 1909年 6月間의 〈官報〉와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에서 集計한 것임.

43) 〈官報〉 3707號(光武11年 3月7日).

44) 〈官報〉 3593號(光武10年 10月25日), 3707號(全11年

區分 姓名	年度 生年	1905	1906	1907	1908	1909. 6
趙漢喆	?					
李範益	1883	ⓑⓒ	ⓓ	ⓐ	ⓔ ⓕ ⓖ	ⓓ
金澈龜	?		ⓑ	ⓓ	ⓕ ⓖ	
尹榮觀	?					
凡例	≡≡≡ 建築所 勤務					
註	ⓐ 内部 主事		ⓐ 内部 翻譯官			
	ⓑ 外國語學校 教官		ⓓ 春川, 金山, 達成 郡守			
	ⓒ 陸軍 通譯		ⓓ 度支部水道局 技師			
	ⓓ 度支部 翻譯官		ⓓ 農商工部 參書官			
	ⓔ 農商工部 書記官		ⓕ 中樞院 副贊議			
	ⓕ 農商工部 秘書官					

〈그림 2〉 建築所 韓國人技術職職員의 經歷

建築소에 근무한 한국인직원이다. 官報에는 그가 출장명령을 받았거나 敍勳을 받은 記事가 전혀 없고 <度支部公報>에도 뚜렷하게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趙漢喆은 建築所 초기부터 國枝博의 휘하에서 설계·제도업무에 종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官立日語學校를 졸업하고 외국어학교 교관과 육군통역을 거친 李範益은 처음부터 일본어능력 하나로 官職을 시작한 자로 보인다. 建築所 技師로 불과 3개월 근무했을 뿐이다. 建築所에서는 技師(奏任官4等)로 서임을 받았지만 그의 경력으로 미루어 기술업무에 종사한 것 같지는 않고 통역으로서 일본인직원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그는 建築所 技師職을 사임하고 보름후에는 다시 農商工部 書記官으로 임용받는데 1907년 11월에는 황태자의 일본유학시 陪從하기도 했다. 함방후에는 각지의 군수를 지내다가 1929년에는 강원도 지사까지 오른 자이다.⁴⁵⁾

金澈龜는 1907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建築所 技師로 근무했다. 그는 鐵道院 技師(奏任官 6等)로 있던 1900년 11월 駐割日本公使 隨員이 되었으며 1905년 7월 法部の 法律起草委員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度支部水道局 技師(奏任官 4等), 農商工部 參書官을 지낸 후 建築所 技師로 서임받은 것이다. 그가 기술관료출신인지는 확실치 않다. 建築所 技師로 서임받게 된 것은 그가 公使隨員으로 일본을 다녀와 일본어를 어느정도 해득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金澈龜는 잠시 建築所에서 근무한 후 中樞院 副贊議로 자리를 옮긴다.⁴⁶⁾

尹榮觀은 4等の 煉瓦製造所 技手로 근무한 자이다.⁴⁷⁾ 벽돌과 기와, 토관등의 건축재료생산공장의 하위기술직에 근무한 尹榮觀이 실제로 전문기술분야에서 일했는지, 현장작업감독직을 맡았는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지만 연와제조소의 대다수 한국인이 임시고용의 노무자로서 일한 가운데 尹榮觀이 그나마 유일한 기술계 관직이다.

3月7日), 3986號(隆熙2年 2月1日), 4178號(全3年 9月16日), 4768號(全4年 8月29日)

45) <高宗實錄> 光武7年 4月7日條, <朝鮮人事與信錄> 朝鮮新聞社, 1922, pp. 151~152, <朝鮮紳士錄> 朝鮮紳士錄刊行會, 1931, p. 479, <官報> 3795號(光武11年 6月18日), 3806號(全4年 7月1日), 4679號(隆熙4年 5月16日)

46) <官報> 1562號(光武4年 5月1日), 1742號(全4年 11月27日), 3202號(全9年 7月27日), 3466號(全10年 5月30日), 3648號(全11年 12月28日), 3795號(全11年 6月 18日), 3840號(隆熙元年 8月9日)

47) <韓國財務經過報告>第1回, p. 563

區分 姓名	年度 生年	1905	1906	1907	1908	1909.6
金教聲	1861		Ⓐ	≡≡≡≡	Ⓑ Ⓒ Ⓓ	
金明濟	?			Ⓔ	≡≡≡≡	Ⓕ Ⓖ
俞承兼	1877			Ⓗ	≡≡≡≡	Ⓘ
朴正統	?	Ⓜ Ⓚ Ⓛ			≡≡≡≡	
崔承七	?				≡≡≡≡	
金元植	?	Ⓜ		Ⓝ Ⓞ	≡≡≡≡	
梁曾煥	?					≡≡≡≡
凡例	≡≡≡≡ 建築所勤務					
註	Ⓐ 度支部 參書官		Ⓛ 度支部 書記官			
	Ⓑ 度支部 參書官		Ⓜ 東京工業學校 卒業(紡績技術)			
	Ⓒ 度支部 參書官		Ⓝ 駐日公使館 3等參書官			
	Ⓓ 財務署 財務官		Ⓞ 駐日公使館 2等參書官			
	Ⓔ 宮内部 秘書官		Ⓟ 外國語學校 副教官			
	Ⓕ 度支部 稅務官		Ⓠ 黃海道 通譯官補			
	Ⓖ 財務署 財務官		Ⓡ 黃海道裁判所 通譯官			
	Ⓗ 農商工學校 教官					

〈그림 3〉 建築所 韓國人事務職職員의 經歷

이상으로 보아 建築所의 기술직관리로 근무한 4명의 한국인직원은 趙漢喆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축기술업무에 종사한 것으로는 간주하기 어렵다. 그들은 직명은 技師, 技手이지만 통역이나 한국정부관계의 사무행정업무를 맡아 일본인직원의 업무처리에 보조역할을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합방시까지 건축과설계계에 근무한 趙漢喆도 건축교육력과 기타의 경력이 불명으로 남아 건축소에서 시행한 洋式建築設計와 施工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추정하기 어렵다. 그나마 韓國人技師중 趙漢喆만 계속 근무했을 뿐 다른 2명의 韓國人技師는 韓日新協約을 전후하여 모두 建築所를 떠나고 그후 한국인기술자의 서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4-2. 韓國人-事務官·主事

고찰대상이 되는 建築所의 한국인 사무직은 모두 7명이다. 이중 奏任官級의 事務官이 4명이고 判任官級의 主事が 3명이다. 敍任順序에 따라 거명하면 事務官은 金教聲, 金明濟, 俞承兼, 朴正統이고 主사는 崔承七, 金元植, 梁曾煥이다. 이

들의 敍任年度와 建築所 근무전후의 經歷은 〈그림 3〉과 같다.

事務官 金教聲⁴⁸⁾ 金明濟⁴⁹⁾, 俞承兼⁵⁰⁾은 그들의 경력으로 미루어 모두 탁지부의 財政通이다. 建築所 근무도 그들에게는 財政事務職의 一環이었을 뿐이었다.

朴正統⁵¹⁾은 정부과견의 일본유학생출신으로 紡

48) 金教聲의 경력에 관해서는 〈朝鮮紳士名鑑〉 日本電報通信社京城支局, 1911, p. 199, 〈純宗實錄〉 隆熙4年 4月29日條, 〈官報〉 3641號(光武10年 12月 20日), 3707號(全11年 3月7日), 3799號(全11年 6月22日), 3980號(隆熙2年 1月25日), 4641號(全4年 4月1日)參照

49) 金明濟의 경력에 관해서는 〈官報〉 號外(光武11年 2月 11日), 3695號(全年 2月21日), 3707號(全年 3月 7日), 3952號(隆熙元年 12月18日), 3980號(全2年 1月 25日)參照

50) 俞承兼의 경력에 관해서는 〈朝鮮紳士名鑑〉 p. 227., 〈官報〉 3663號(光武 11年 1月15日), 3707號(全年 3月7日), 3821號(全年 7月18日), 3828號(全年 7月 26日)參照

51) 朴正統의 경력에 관해서는 〈皇城新聞〉 光武4年 12月1

績技術을 배우고 왔다고 한다. 일본어에 능숙했던 관계로 駐日公使를 수행하고 駐日公使館에 근무하게 된다. 그는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建築所의 계장까지 오른 자이다.

煉瓦製造所 主事를 지낸 金元植⁵²⁾은 1904년 8월 外國語學校 副教官이었던 자로 1907년 2월 黃海道 通譯官補(判任官6等)가 되었는데 그해 4월 黃海道裁判所 通譯官을 겸임하던 중 煉瓦製造所에 발탁된 것이다. 그의 경력으로 미루어 작업인력 관리등의 업무에 통역으로 근무했을 것이다.

主事 崔承七⁵³⁾과 梁曾煥⁵⁴⁾은 일반 사무직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보면 건축소의 한국인 사무직직원은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재정업무담당의 일반사무직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을 다녀오거나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출신의 직원유형이다. 재정업무에도 밝은 일본통이면 더욱 환영받았을 것이다. 朴正統은 두 업무에 모두 능통했을 것이기에 서무계장까지 올라 합방시까지 중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본인직원의 現地手足으로서 建築所의 업무수행에 앞장섰던 것임이 틀림없다.

4-3. 日本人-建築技師

建築所에 근무한 6명의 일본인 建築技師를 來韓順序에 따라 거명하면 岩田五月滿, 勝又六郎, 石原錠太郎, 國枝博, 馬淵豊, 渡邊節이 된다. 이들이 建築所에서 수행한 각종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업무의 지도적 역할을 맡은 기술자들

이다. 이들의 來韓時期와 建築所 入所前 한국에서의 근무기관 및 來韓前後의 학력과 경력등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다.(p. 64 참조)

이들 6명의 建築技師중 최초로 來韓한 자는 1905년 8월 仁川 海關燈臺局에 고용된 岩田五月滿이다.⁵⁵⁾ 그해 12월에 稅關工事部가 창설됨에 따라 岩田五月滿은 1906년 5월 1일자로 稅關工事部工務局所屬의 技師가 된다.⁵⁶⁾ 日本 大藏省臨時 建築部 技手인 勝又六郎은 1905년 9월 22일 財政顧問部⁵⁷⁾에 발탁되어 稅關工事部工務局 技師가 된 자이다.⁵⁸⁾ 岩田五月滿과 勝又六郎은 稅關工事部に 두명 밖에 없는 建築技師로서 建築所로 발령받기전까지 稅關工事部가 처리한 건축업무를 전담했던 것이다. 1905년 12월 財政顧問部 직원으로 입국한 石原錠太郎은 學部の 囑託技師로 근무하다가 1908년 4월에야 建築所 技師를 겸임하게 되는 자이다.⁵⁹⁾ 1906년 9월과 1907년 5월에 각각입국한 國枝博과 馬淵豊은 韓日新協約이 체결되어 정식관리로 임용될 때까지 신분은 囑託技師였지만 초기의 建築所를 운영해간 주역들이었다. 그리고 渡邊節은 대학졸업직후부터 建築所에서 경력을 쌓게된다. 이렇게 6명의 建築技師들은 서로 다른 길을 거쳐 1908년부터 建築所에서 합류하게된다.

여기서 각 技師들의 건축교육력과 건축관계경력을 보다 상세하게 고찰해보자.

建築課監督係長으로 근무중이었던 1910년 7월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岩田五月滿은 당시 그들 나름의 사명감과 모험심에 불타 해협을 건너 한국에

日 雜報, <高宗實錄> 光武8年 4月1日條, 全年 9月 22日條, 全9年 7月19日條, <官報> 3828號(光武11年 7月26日), 3986號(隆熙2年 2月1日)

52) 金元植의 경력에 관해서는 <官報> 2919號(光武8年 8月31日), 3693號(全11年 2月19日), 3748號(全年 4月 24日), 3987號(隆熙2年 2月3日) 參照

53) 崔承七에 관해서는 <官報> 3844號(隆熙元年 8月14日), 3975號(全2年 1月20日), 4276號(全3年 1月16日) 參照

54) 梁曾煥에 관해서는 <官報> 4287號(隆熙3年 1月27日) 參照

55) <建築雜誌> 日本建築學會, Vol. 24. No. 284. (1910年 8月號)

56) <韓國財政整理報告> 4回, p. 248

57) 1905년 12월 재정고문부 초기에 근무한 35명의 직원 중에는 건축기사 勝又六郎과 토목기사 遠藤善十郎이 있었다. 岩田五月滿은 당시 인천 해관등대국에 근무하고 있었다. <韓國財政整理報告> 第1回, 韓國政府財政顧問部, 1905年 12月, p. 7-1

58) <韓國財政整理報告> 第1回, p. 7-1

59) <官報> 4046號(隆熙2年 4月13日), 4178號(全年 9月16日)

區分 姓名	年度 生年	1905	1906	1907	1908	1909.6
* 岩田五月滿	1872	Ⓐ	//////		=====	Ⓑ
* 勝又六郎	1856	ⓒ		=====	=====	Ⓓ
* 石原錠太郎	?	Ⓔ	=====	=====	=====	Ⓕ
* 國枝博	1879	Ⓒ	=====	=====	=====	Ⓖ
** 馬淵豊	?		Ⓘ	=====	=====	Ⓙ
渡邊節	1884				Ⓚ	Ⓛ
凡例	* 統監府 技師 ** (日本) 遞信技師 ===== 財政顧問部 勤務 //// 海關燈臺局 勤務 稅關工事部, 臨時稅關工事部 勤務 ===== 建築所 勤務					
註	Ⓐ 1904.7 東京大土木科, 建築科 卒業 1904.7-1905.3 東京砲兵工廠營繕掛 傭員 Ⓑ 1910.7 大韓醫院에서 死亡 ⓒ 1876 盛岡修文館 修了 岩手縣廳・茨城縣廳營繕課 勤務 1890 盛陽會社入社 建築土木設計 擔當 1896 大藏省臨時建築部 技手 Ⓓ 1910.8 高等官 7等으로 辭職, 京城에서 建築設計業 Ⓔ 學歷・經歷未詳. 學部技師로 勤務中 建築所 技師 兼任發令 Ⓕ 1910.7 建築課設計係 勤務中 命 建築課監督係長 Ⓒ 1905 東京大建築科 卒業 Ⓖ 1910.10 朝鮮總督府會計局營繕課 技師 1918.9 朝鮮總督府 技師 辭職 1919. 日本에서 國枝工務店 開設 Ⓘ 學歷未詳 日本 遞信技師 Ⓙ 1910 朝鮮總督府 技師 Ⓚ 1908.7 東京大建築科 卒業 Ⓛ 1912 朝鮮總督府 技師 辭職, 日本鐵道院 入社 1916 大阪에서 建築設計事務所 開設					

〈그림 4〉 建築所 日本人建築技師의 學歷과 經歷

은 일본기술자들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 대학졸업후 東京砲兵工廠營繕掛에서 傭員으로 6개월 근무한 것이 건축경력의 전부인 그는 仁川 海關燈臺局 技師로 월봉 120圓에 고용되어 인천연안의 등대시설등을 설계했다고 한다.⁶⁰⁾ 海關과의 인연

으로 그는 관제의 변화에 따라 稅關工事部, 臨時稅關工事部 技師를 거쳐 1908년 8월 建築所 技師가 되고 곧 建築課監督係長으로 補任받는다.⁶¹⁾

60) 〈仁川府史〉 p. 747

61) 〈官報〉 3970號(隆熙2年 1月14日), 〈統監府公報〉 18號(明治40年 8月10日),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 pp. 224~225

그의 사망후 <建築雜誌>에 실린 추도문에 그의 건축업적이 “巨文島, 七發島, 大華島 등의 등대공사와 인천, 부산, 진남포등지의 각 세관의 청사, 관사, 창고를 始發로 탁지부청사, 경성고등법원 청사에 이르는 설계감독 총 691건이 한국 13도에 널리퍼져……” 운운하고 있음을 볼 때 岩田五月滿은 土木技師가 주류를 이룬 稅關工事部에서 건축관련업무를 거의 전담한 것이 확실하다. 岩田五月滿의 官等は 사망전 奏任官 2等에까지 이르렀으며 建築課長 不在時에는 대리로 사무처리를 전담했을만큼 建築所에서는 신임받은 技師였음에는 틀림없다.⁶²⁾

勝又六郎의 약력에는 1876년 日本 岩手縣盛岡市에 있는 盛岡修文館을 수료한 것이 최종학력으로 되어있지만⁶³⁾ 거기서 건축기술을 배운것 같지는 않다. 日本明治期에 洋式建築을 가르치는 직업기술학교가 나타난 것은 1890년 중반이었기 때문이다.⁶⁴⁾ 그는 縣廳營繕課 官吏와 민간회사 토목·건축설계직을 거치면서 1890년대 중반부터 쏟아져나온 建築講義錄으로 洋式建築을 익힌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⁶⁵⁾ 그는 建築所에 재직하면서 營繕係長으로 始終했음을 볼 때 중요건물의 설계에 관여한것 같지는 않고 소규모공사의 설계, 시공등의 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보인다. 韓日合邦으로 建築所가 해체될때 그는 高等官7等으로 사직하고 京城에 정착하여 건축설계업에 종사했다.

建築所 設計係長으로 근무한 國枝博과 1908년 10월에 技師가 된 渡邊節은 위에서 고찰한 岩田五月滿과 함께 東京大學 출신으로 建築所의 建築技師중 최고의 엘리트로 간주된다.

먼저 國枝博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그는 1905년 7월 東京大建築科를 졸업하고 1년후인 1906년 9

월에 來韓한다.⁶⁶⁾ 졸업후 1년간의 경력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건축설계에 종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國枝博이 한국으로 올 무렵의 일본은 러일전쟁후의 심각한 경제공황의 여파로 국내건설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있을 때였다.⁶⁷⁾ 그는 建築所 補屬技師로 근무할 때부터 建築所의 주요건축물의 설계를 모두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907년 8월 5일 현재 國枝博은 大韓醫院本館과 병실, 기타 부속건물 5동을 비롯하여 天一銀行, 인천시멘트창고, 탁지부구내부속건물등의 설계를 이미 끝내었고 財政顧問本部廳舍를 제도중이었다고 한다.⁶⁸⁾ 1907년 8월 10일 國枝博은 岩田五月滿, 勝又六郎 그리고 土木技師인 遠藤善十郎, 藤宮惟一과 함께 統監府 技師(高等官 7等)로 임용받고⁶⁹⁾ 다시 1908년 1월14일에는 補屬을 벗고 建築所의 正式技師(奏任官 3等)가 되어 土木技師인 工事課長아래 建築係長이 된다. 건축적으로는 建築所내 최고책임자가 된 것이다. 그후 臨時稅關工事部 흡수후에는 建築課 設計係長이 되었고 합방후에는 朝鮮總督府 技師로 總務局營繕課에 근무하다가 1918년 高等官 3等으로 總督府를 사직하고 다음해 일본에서 國枝工務店이라는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활동을 계속한다.⁷⁰⁾

渡邊節은 당시 建築所 工事顧問이었던 大藏省 臨時建築部 部長 妻木賴黃의 추천을 받아 建築所 技師로 한국에 오게된다. 1908년 7월에 東京大建築科를 졸업하고 같은 달에 來韓하였으니 그의 건축경력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渡邊節은 그가 한국에 오게된 동기로 “대학졸업을 앞두고 당시 學界의 辰野金吾, 宮内省의 片山東熊, 官界의 妻木賴黃⁷¹⁾에게 就職을 부탁했지만 당시 일본

62) <官報> 4316號 (隆熙3年 3月4日)
 63) <在朝鮮實業家辭典(第1篇)>, 朝鮮實業新聞社, 1913 pp. 82~83
 64) 村松貞次郎: <日本近代建築技術史> 彰國社, 1979, p. 101
 65) 村松貞次郎: <上揚書> pp. 99-103

66) <朝鮮紳士名覽> p. 309
 67) Peter Duus (金容德 譯); 日本近代史, 知識產業社, 1983, p. 189
 68) <財務週報>17號, 度支部, 1907年 8月5日, pp. 129~130
 69) <統監府公報> 第18號(明治40年 8月10日)
 70) <日本建築士> 日本建築士會, Vol. 33, No. 4(1943. 10, 11, 12號 合本) pp. 90~91
 71) 이들 모두 東京大出身으로 明治期 日本建築界의 三大

設計年度	竣工年度	建物名	構造	層數
1908	1909	釜山稅關監視部廳舍	木造	2
1906-1909	1910	仁川稅關廳舍	벽돌造	2
1908-1909	1911	釜山稅關廳舍	벽돌造	2
1909-1910	1911	釜山稅關埠頭上屋	鐵骨造	2

〈표 2〉 建築所의 渡邊節 設計建築物

국내에는 적당한 자리가 없었다. 그때는 그런 시대였다. 그후 妻木頼黃의 추천을 받아 建築所에 들어갔다.”⁷²⁾고 훗날 그의 한국시절을 회고한 바 있다. 당시도 일본국내토건업계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日本土木組合의 會員會社 전부가 한국으로 진출하는 바람에 조합이 해산될 정도였으니⁷³⁾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渡邊節의 渡韓動機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渡邊節은 建築所 입소직후부터 중요건축물의 설계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7월에 來韓했지만⁷⁴⁾ 10월 31일자로 技師(奏任官 4等) 敍任을 받았으니⁷⁵⁾ 3개월은 임시직으로 근무하며 설계에 임했을 것이다.

〈渡邊節 作品年譜〉⁷⁶⁾에는 建築所 技師時節의 설계작품으로 다음 4점이 실려있다. 〈표 2〉

한국에 온지 일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에 渡邊節은 〈표 2〉의 4건물중 釜山稅關埠頭上屋을 제외한 3건물을 설계했음이 확실하다. 즉, 釜山稅關監視部廳舍와 釜山稅關廳舍 설계도는 1909년 6월에 발행된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에 실려있으니⁷⁷⁾ 그 이전에 설계가 끝났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仁川稅關廳舍는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

에 실린 도면⁷⁸⁾과 〈渡邊節 作品年譜〉의 도면⁷⁹⁾이 서로 다르고 구조도 前者는 목조 2층인데 後者는 벽돌조 2층으로 서로 다르기는 하나 최소한 두 건물중 하나는 渡邊節의 작품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합방후인 1912년 7월 그는 朝鮮總督府 總務局營繕課 技師職을 사임하고 일본으로 돌아가 잠시 日本鐵道院 西部鐵道管理局 技師로 근무하다가 1916년에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여 日本 關西地方의 대표적 건축가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⁸⁰⁾

石原錠太郎은 1905년 12월 財政顧問部技手로 來韓하여 1907년 9월에 高等官 7等の 統監府 技師가 된 자이다. 한국정부의 學部 囑託技師로 근무하던 중 1908년 4월 建築所 兼任技師로 敍任받는다. 그해 9월, 臨時稅關工事部를 흡수한 建築所가 체제를 정비할 즈음에 그는 建築課 設計係에 보임받고 監督係長 岩田五月滿이 사망한 1910년 7월에는 監督係長職을 겸직하게 된다.⁸¹⁾ 그의 학력과 來韓以前の 건축경력은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다.

일본정부의 遞信技師 관직을 갖고 1907년 5월에 來韓한 馬淵豊의 학력과 기타 경력도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불명이다.

지금까지 建築所 建築技師 개개인의 면모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들 기사들의 건축교육력을 보면 岩田五月滿, 國枝博, 渡邊節이 東京大建

巨頭로 꼽힌 자들이다. 村松貞次郎;〈日本建築家山脈〉 鹿島出版會, 1985, pp. 21~22

72) 〈日本の建築(明治·大正·昭和)〉VOL. 6, 三省堂, 1979, p. 103

73) 〈日本土木建設業史〉 日本土木工業協會·電力建設業協會, 1971, p. 93

74) 〈日本近代建築史再考〉 新太陽社, 1977, p. 55

75) 〈官報〉 4216號(隆熙2年 10月 31日)

76) 〈日本の建築(明治·大正·昭和)〉 p. 178

77)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 pp. 133~135

78)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 p. 124

79) 〈日本の建築(明治·大正·昭和)〉 p. 105

80) 〈日本近代建築史再考〉 p. 55

81) 〈統監府公報〉 23號(明治40年 9月14日), 〈官報〉 4046號(隆熙2年 4月13日), 4178號(全年 9月16日), 4737號(全4年 7月 22日)

築科를 졸업했고 石原錠太郎, 馬淵豊은 불명이나 정규대학 건축과출신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勝又六郎은 독학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에는 日本大藏省臨時建築部 技手-財政顧問部 技師-稅關工事部技師-囑託技師의 과정을 거쳐 建築所 技師가 되는 자도 있고 일본에서의 관직을 거치지않고 財政顧問部 技手·技師-囑託技師-建築所 技師의 코스를 밟은 자도 있다. 勝又六郎이 前者의 경우이며 國枝博은 後者의 경우이다. 岩田五月滿은 仁川 海關燈臺局-稅關工事部-臨時稅關工事部-建築所의 과정을 거치지만 신분상으로는 後者와 동일한 경우이다. 그리고 馬淵豊은 日本 遞信技師-囑託技師-建築所 技師의 과정이라할 수 있다.

어떤 과정으로 이들이 建築所 技師가 되었던 간에 이들 대부분의 건축실무 경력은 극히 일천하다. 엘리트로 간주되는 岩田五月滿, 國枝博, 渡邊巖이 한국에 올때 각각 33, 27, 24세의 나이였을 뿐이었고 실무경력도 國枝博의 1년이 최고로 보이거나 그나마 확실치 않다. 학력불명의 石原錠太郎과 馬淵豊도 비슷한 연령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勝又六郎은 來韓時 49세였으나 정규건축교육을 받은 자는 아니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이 자들이 지도적 역할을 맡아 공사를 수행한 建築所는 일천한 경력의 이들에게 건축실무무대로 제공된 것임이 보다 확실해진다.

4-4. 日本人-土木技師

고찰대상이 되는 日本人 土木技師 8명을 來韓順序에 따라 나열하면 <그림 5>와 같다.(p. 68참조)

이들중 大藏省臨時建築部 技師라는 일본관명을 갖고 建築所 技師로 근무한 자는 永井松次郎, 阪出鳴海, 疋田玄龜의 3명이고 統監府 技師 서임을 받은 자는 遠藤善十郎과 藤宮惟一이다. 학력을 보면 정규대학토목과 출신이 4명, 기술계고등학교출신이 2명이고 확실치 않은자가 2명이다.

箇箇技師의 면모를 보다 상세히 고찰해보자.

遠藤善十郎은 일본 臨時稅關工事部 技手로 재직하다가 建築所의 土木技師중 제일 먼저 來韓하여 1905년 9월 27일 財政顧問部 技手로 임용된

자이다.⁸²⁾ 建築技師 勝又六郎과 함께 財政顧問을 수행한 35인의 직원중 1인이다. 稅關工事部 技手を 거쳐 臨時稅關工事部 技手(奏任官 3等)때 統監府 技師(高等官 7等)敍任을 받고⁸³⁾ 1908년 8월 臨時稅關工事部가 建築所에 흡수되면서 建築所 技師가 되었다. 臨時稅關工事部 재직시부터 釜山出張所長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며 1909년 1월에는 釜山行在所에서 高宗을 알현하기도 하였다. 함방 후 총독부기사가 되어 세관공사과의 인천출장소장, 부산출장소장을 맡는다.⁸⁴⁾

일본 第3高等學校 工學部土木科를 졸업한 永井松次郎은 大藏省臨時建築部 技師라는 日本官名과 함께 現役 陸軍工兵少尉의 계급을 갖고 1905년 11월에 來韓하였다. 稅關工事部 技師와 臨時稅關工事部 第2課長을 지냈고 建築所 흡수후에는 土木課長이 되어 土木技師중 工事部長 다음의 2인자 자리를 항상 유지한 자이다. 1908년 1월에는 勝又六郎과 함께 特敍勳五等賜太極章을 받기도 하였다. 함방후 총독부기사가 되어 세관공사과에 근무한다.⁸⁵⁾

阪出鳴海는 東京大土木科를 졸업하고 大藏省臨時建築部 技師로 근무중 1906년 5월에 입국하여 稅關工事部 工務局長, 臨時稅關工事部 部長(奏任官 1等)을 지내고 建築所에서는 建築課長 겸임의 工事部長이 된 최고위직 기술자이다. 大藏省臨時建築部の 한국과견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이며 함방후 度支部 稅關工事課長을 지내고 관제개편후에는 土木局 工務課長이 된다. 1908년에는 特敍勳三等賜八卦章을 받기도했다.⁸⁶⁾

岩城信太郎은 京都大 졸업 5년후인 1906년 5월 稅關工事部 技手로 來韓하는데 일본에서의 경력

82) 註 57)과 同

83) <統監部公報> 第18號(明治40年 8月10日)

84) <官報> 4284號(隆熙3年 1月26日)

85) <官報> 3966號(全2年 1月9日), 3970號(全年 1月14日), 4316號(全3年 3月4日), 4567號(全4年 1月4日). <朝鮮紳士名覽> p. 267

86) <官報> 3970號(隆熙2年 1月14日), 3976號(全年 1月21日), 3983號(全年 1月29日), 4001號(全年 2月19日), 4176號(全年 9月14日). <朝鮮總督府及附屬官署職員錄> 1911, p. 7, <同書>1912, p. 8

區分 姓名	年度 生年	1905	1906	1907	1908	1909. 6
* 遠藤善十郎	?	Ⓐ	▨	▨	▨	Ⓑ
** 永井松次郎	1876	Ⓒ	▨	▨	▨	Ⓑ
** 阪出鳴海	?	Ⓓ	▨	▨	▨	Ⓔ
岩城信太郎	1873	Ⓕ	▨	▨	▨	Ⓑ
* 藤宮惟一	?		Ⓖ	▨	▨	Ⓑ
** 疋田玄龜	1873	Ⓖ		▨	▨	Ⓑ
村幸長	?					
八島明	1880				①	Ⓙ
凡例	* 統監府 技師 ** 大藏省臨時建築部 技師 ▨ 財政顧問部 勤務 ▨ 稅關工事部, 臨時稅關工事部 勤務 ≡ 建築所 勤務					
註	Ⓐ 元 大藏省臨時稅關工事部 技手 Ⓑ 1911 朝鮮總督府 度支部稅關工事課 技師 Ⓒ 1899. 7 第3高等學校工學部土木科 卒業 1899. 7-1904 志願兵軍生活, 陸軍工兵少尉 任 Ⓓ 1899. 7 東京大土木科 卒業 大藏省臨時建築部 勤務 Ⓔ 1911 朝鮮總督府 度支部稅關工事課長 1912 朝鮮總督府 土木局工務課長 Ⓕ 1901. 4 京都大土木科 卒業 Ⓖ 1906. 7 東京大土木科 卒業 Ⓖ 1898. 7 東京高等工業學校土木科 卒業 ① 1908. 7 京都大土木科 卒業 Ⓙ 1911 朝鮮總督府 度支部稅關工事課 囑託(清津出張所長)					

〈그림 5〉 建築所 日本人士木技師의 學歷과 經歷

은 알려진바 없다. 鎭南浦出張所長을 지냈고 합방후 總督府 技師를 거쳐 1924년에는 京城府 土木課長이 된다.⁸⁷⁾

藤宮惟一은 1906년 7월 東京大土木科 졸업과 동시에 來韓하여 稅關工事部에서 경력을 쌓는다. 1907년 8월 統監府 技師(高等官 7等)가 되고 곧 仁川出張所長이 되어 합방후까지 자리를 지킨다.⁸⁸⁾

疋田玄龜는 1898년 東京高等工業學校 土木科를 졸업하고 1907년 7월 大藏省臨時建築部 技師로 來韓하여 臨時稅關工事部 技師(奏任官 4等)가 된다. 1909년 建築所機械係長으로 재직하다가 합방 후 總督府 技師가 된다.⁸⁹⁾

村幸長은 1909년 2월 來韓하여 奏任官3等 技師

87) 〈官報〉 3970號(隆熙2年 1月14日), 4567號(全4年 1月4日), 〈朝鮮人事與信錄〉 p. 22, 〈朝鮮紳士錄〉 p. 47

88) 〈官報〉 3970號(隆熙2年 1月 14日), 4178號(全年 9月

16日), 〈統監府公報〉 18號(明治40年 8月10日), 146號(全43年 4月2日),

89) 〈官報〉 3970號(隆熙2年 1月14日), 4432號(全3年 7月 19日), 〈朝鮮紳士名覽〉 p. 550

로 발령받고 淸津出張所長으로 보임되었다가 1910년 8월 土木課設計係長으로 전보된다.⁹⁰⁾ 建築所 입소전의 학력과 경력은 불명이다.

八島明은 1908년 7월 京都大土木科를 졸업하고 1909년 3월 來韓하여 奏任官 4등의 技師로 근무중 6월 土木課設計係長이 된다. 1910년 8월 村幸長과 자리를 바꾸어 淸津出張所長으로 나갔다가 합방후 總督府土木局의 淸州, 元山, 淸津등지의 出張所長을 역임하고 1917년 京城出張所長이 된다.⁹¹⁾

지금까지 建築所 土木技師 8명의 신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 중 來韓時機가 이른 자는 財政顧問部와 稅關工事部를 거쳤고 늦은 자는 臨時稅關工事部를 거치나 1908년 8월에는 모두 建築所 技師가 되었다. 그러나 몇몇 技師들은 臨時稅關工事部 재직시부터 建築所 技師를 겸직해 왔고 다른 技師들도 臨時稅關工事部 재직시의 보임과 직급에 아무런 변동없이 建築所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臨時稅關工事部에서와 달라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土木技師들 중에는 來韓前에 工兵으로, 日本 大藏省臨時建築部 所屬으로, 아니면 한국에 와서 稅關工事部 所屬으로 경력을 쌓고 建築所 技師가 된 자도 있고 학교졸업과 동시에 建築所 技師로 서임받은 자도 있다. 창설초기에는 前者의 경우가 많았지만 1909년 이후부터는 後者의 예도 관찰된다. 韓日合邦을 맞아 이들은 總督府의 度支部稅關工事課 技師로 흡수되고 관제변경후 土木局 技師가 되어 관직을 계속한다.

5. 결론

지금까지 구한국시대 최대의 정부공사기구인 建築所를 중심으로하여 稅關工事部와 臨時稅關工事部의 職員構成과 補任, 그리고 建築所에 근무한 韓國人 職員과 日本人 技師들의 건축관계학적

과 경력을 고찰해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建築所의 사업은 공식적으로 機構의 官制가 공포되는 1906년 9월이전에 이미 陰性的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때 공사를 수행한 주체는 總稅務司 겸 財政顧問이 管掌하는 稅關工事部工務局에 소속된 기술자들이었다. 이들은 전원 일본인들이었는데 주로 日本 大藏省의 臨時建築部·臨時稅關工事部에서 파견된 技師·技手들이 많았으며 建築所 창설후에는 建築所職員을 겸임하게 되는 자도 있었다.

둘째, 建築所를 전담하는 일본인직원은 建築技師 國枝博을 제외하고는 모두 建築所 창설이후부터 來韓하기 시작하는데 韓日新協約 이전에는 正式官吏가 아닌 補屬身分이었지만 建築所의 실제 업무는 이들에 의해 전적으로 처리되었다. 이때 建築所의 正式官吏로 근무한 한국인직원은 모두 탁지부겸임이었고 建築所에서의 근무기간은 극히 짧았다. 또한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管掌業務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韓日新協約 이후에는 建築所에 한국인직원의 任用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庶務係長職을 제외한 建築所의 모든 補任은 일본인들이 완전히 독점한다.

셋째, 韓日新協約 調印前 建築所에 근무한 한국인 技師들은 그들의 경력으로 미루어보아 기술 자라기보다는 일본어에 능하거나 일본에 다녀온 적이있는 日本通으로 통역이나 기타 일본인직원의 업무추진에 보조역을 하는데 그쳤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초기부터 건축기술자로 근무한 한국인 技師 趙漢喆의 역할을 규명하는데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필요하다.

넷째, 建築所와 稅關工事部, 臨時稅關工事部에 근무한 일본기술자들의 官名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日本政府 官名과 統監府 官名, 그리고 韓國政府 官名이다. 즉, 大藏省臨時建築部 技師·技手 혹은 遞信技師등은 일본정부에서 받은 관명이고 統監府 技師·技手는 統監府 관명이며 建築所 技師, 臨時稅關工事部 技師·技手, 學部技師등은 한국정부관명이다. 일본기술자중에는 세가지 관명을 동시에 가진 자도 있고 두가지나 한가지 관명을 가진 자도 있으며 일본 관명을

90) <官報> 4305號(隆熙3年 2月19日), 號外(全4年 8月29日)

91) <官報> 4325號(隆熙3年 3月15日), 4329號(全年 3月19日), 4391號(全年 6月1日), 號外(全4年 8月 29日), <朝鮮紳士名覽> p. 324

벗고 통감부 관명이나 한국정부 관명을 갖게 되는 자도 있다. 韓日新協約 調印前에는 앞의 두가지 경우가 많았지만 이후에는 후자의 경우가 두드러진다. 이것은 韓日新協約 이전에는 정책적인 동기에서 파견된 일본 현직관리가 많았고, 이때 일본 관리출신이 아닌 자는 한국정부의 정식관리가 아닌 囑託身分이었기 때문에 統監府 所屬으로 하여 기술자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했으나 韓日新協約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정부관명만으로 충분했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일본기술자들의 來韓動機를 보면 초기에는 現職官吏의 파견이 많았으나 후기에는 일본 국내의 경제공황과 이에 따른 일본국내건설경기의 불황에 따라 취직자리를 찾아 來韓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前者는 식민지병합을 위한 준비과정이었고 後者는 일본국내경제불황의 돌파구로 한국정부의 공사기구가 이용된 결과라 할 수 있으니 日本技師들의 來韓이 한국근대건축의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기는 처음부터 무리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섯째, 舊韓國政府工事機構의 日本人技師는 稅關工事部工務局과 臨時稅關工事部에서 轉補된 자, 統監府 技師敍任을 받고 補囑技師를 거쳐 正式技師가 된 자, 日本官職을 갖고 轉補되어온 자, 학교졸업직후 바로 임용받고 실무경력을 쌓게 되는 자 등 여러가지 부류가 있으며 학력도 대학졸업, 기술계고등학교졸업, 獨學등 다양하게 나

타지만 정규대학출신들이 기술업무의 지도적 역할을 맡았으며 특히 東京大出身技師들이 고위직에서 조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東京大出身의 建築技師들은 중요건축물의 설계업무를 맡았으며 나머지는 주로 공사감독과 영선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곱째, 韓日合邦後 日本人技師들의 진로를 살펴보면 建築技師 가운데는 合邦을 맞아 사직하고 京城에 눌러앉아 설계업을 하는 자, 일본관직으로 귀임하는 자도 있고 總督府會計局營繕課 技師로 轉補되는 자도 있다. 건축소 중요건축물의 설계를 전담한 國枝博과 渡邊節은 總督府 技師로 轉補되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으로 돌아가 각각 설계사무소를 개설한다. 이에 비하여 土木技師들은 合邦直後 모두 總督府의 度支部稅關工事課 技師가 되고 官制變更후에는 土木局 技師가 되어 식민지한국에서 技術系 官職으로 출세의 길을 걷게 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은 해명되지 못한 채로 남는다. 稅關工事部와 臨時稅關工事部, 建築所의 편파적인 일본인 중심운영에 당시 한국인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한국에서 활동한 일본인 건축기술자들의 기술수준은 당시 일본국내수준에 비하여 어느 정도였는가, 日本 大藏省臨時建築部는 舊韓國政府의 工事專門機構에 파견한 技術官吏들을 어떻게 콘트롤했는가 하는 등등의 해명되지 못한 과제는 따로 자료의 발굴을 기다려 연구해 볼 만하다.

참고문헌

1. <高宗實錄>
2. <純宗實錄>
3. <皇城新聞>
4. 舊韓國 <官報>
5. <統監府公報>
6. <財務週報> 度支部, 1907, 4~1908. 9
7. <韓國財務經過報告>(1回~5回), 度支部, 1908年 上半期~1910年 上半期

8. 〈韓國財政整理報告〉(1回~5回), 韓國政府財政顧問部, 1905年 12月~1907年 12月
9. 〈建築所事業概要(第一次)〉 建築所, 1909. 6
10. 〈韓國財政施設要綱〉 度支部, 1910
11. 〈建築雜誌〉 日本建築學會, 1910年 8月號
12. 〈朝鮮紳士名鑑〉 日本電報通信社京城支局, 1911
13. 〈在朝鮮實業家辭典(第一篇)〉 朝鮮實業新聞社, 1913
14. 〈朝鮮紳士名覽〉 朝鮮公論社, 1917
15. 〈朝鮮人事與信錄〉 朝鮮新聞社, 1922
16. 〈朝鮮紳士錄〉 朝鮮紳士錄刊行會, 1931
17. 〈仁川府史〉 仁川府, 1933
18. 〈日本建築士〉 日本建築士會, 1943
19. 〈日本土木建設業史〉 日本土木工業協會·電力建設業協會, 1971
20. 〈日本近代建築史再考〉 新太陽社, 1977
21. 村松貞次郎:〈日本近代建築技術史〉 彰國社, 1979
22. 村松貞次郎:〈日本建築家山脈〉 鹿島出版會, 1985
23. 〈日本の建築(明治·大正·昭和)〉 三省堂, 1979
24. 姜萬吉:〈韓國近代史〉 創作斗 批平社, 1984
25. Peter Duus(金容德 譯):〈日本近代史〉 知識產業社, 1983

A Study on the Staffs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of Construction in the Old-Korean Empire

— focused on the Architectural Office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Finance —

Kim, Tae Jung
(Kyoung Nam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Kim, Soon Il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staffs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of Construction who actually led this organization.

Two main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composition and appointment of staffs, before and after the Korea-Japan Treaty in 1907, are evaluated, and
- 2) The working and academic career of each personnel are analyzed in connection with understanding of internal characteristics of this organization.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Korean personel and Japanese engineers who undertook a leading role.

Korean engineering staffs were very few in number. It is thought, viewing their records of careers, that almost all of them didn't have any engineering basis, and simply they had some relations to Japan. It is certain that their role in this organization was interpreters using their Japanese language ability, and their roles were only limited to non-technical areas, if any.

The early engineers from Japan were selected among the officials with comparatively rich careers of the Temporary Architectural Dept. or the Temporary Engineering Dept. of Custom House in Japan. But, in later days, the quality of Japanese engineers changed to the level of premature without practical experiences who unwillingly came to Korea to have a job under the depression of construction economy of Japan.

The academic careers of Japanese engineers were various, from self-taught to regural college education, but the leading engineers were from Tokyo University.

The civil engineers became high-level technical officials in the Government-General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But, sometimes later, many of the architectural engineers became practicing architect managing design offices on private basis.